

모자간호학에서의 민속간호연구

이 경혜
(이화여대간호대학 교수)

출산과 육아의 과정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어느 사회에서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문화를 형성하며 형성된 문화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Sich & Kinm, 1978).

출산과 양육에 따른 건강 혹은 간호행위는 문화에 의해 결정되며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건강행위의 변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방매륜, 1983) 모자간호학분야에서 간호이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실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속한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 중심적인 간호접근법이 필요하다. 횡문화간호이론가인 Lininger(1978)는 의료전문인과 대상자 사이의 문화적 불일치(cultural discrepancies)는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세우고 대화를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대상자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대상자의 행동을 조정, 변형시켜 왔다. 따라서 대상자는 심한 불편감과 불만족감을 가져 왔으며 의료인이 있을 때는 의료인이 시키는데로 하지만 의료인이 없으면 혼자기들의 방식으로 한다(윤순영, 1978). 그러므로 의료계공자가 대상자의 사회적·정서적 안녕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대한 문화적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간호학에서의 최근 연구 경향은 정량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에서 정성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로 관심을 돌

리고 있다. 물론 정량적 연구도 계속 필요하여 간호이론 발전에 많이 공헌하고 있지만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는 정성적인 연구를 통해 현상을 더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정량적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 method)은 연구자가 대상자를 통제 혹은 조작하므로써 대상자에게서 나타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주로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하는데 비해 정성적인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은 연구자가 조사대상자에 대해 전혀 통제나 조작함이 없이 있는 현상 그대로의 가치, 의미, 신념, 감정 및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전체를 가능한 한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하는데 있다.

모자간호학은 생의주기(life cycle)를 중심으로 모성과 아동이 인생의 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발달과정과 그에 따른 일탈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 및 예방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민속간호 접근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문화가 인간의 행동구조를 결정하므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건강, 질병 행위는 그들이 갖는 문화적 신념과 배경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다.

민속간호연구방법은 간호학을 민속(족)학적 방법(ethnographic method)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법과 행동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특정한 문화의 생활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연구자로 하여금 대상자의 건강과 질병행동에 관한 견해를 얻도록 도움을 주며 예측적인 행위에 기반을 둔 간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료를 분류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자간호학에서 질적연구를 돕기 위해 R.R. Parse 등에 의한 민속학적 연구 방법(The Ethnographic method)을 소개하고자 한다.

민속학적 방법(Ethnographic method)

민속학은 인류학(Anthropology)의 한 분야로서 어떤 특정한 문화집단에 대한 과학적인 서술 그것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이 방법의 목적은 참여관찰과 조사적 탐구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즉 연구자는 관찰자로서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 그들의 습관, 의식, 상징을 탐구하는 것이다. 관찰, 토의, 질문, 확인등의 과정을 통해 특정한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넓히고 이것을 개념화한다.

민속학적인 방법에는 emic과 etic의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Emic접근법은 지식의 문화적 구조내에서 내재적인 의미(Semantics or meanings)와 관련짓는 것으로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개념화는 내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로서 연구되고 범주화(categorized)되어야 한다. 즉 특정집단에서 서로간에 펼쳐지는 관계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요소를 검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Frake(1964)는 내부적 관찰자의 입장(inside's view)을 강조하면서 서술의 적합성을 검정하는데 있어서 그 사건을 단순히 일어난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해석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etic접근법은 “일어난 사건(occurrence of events)” 자체를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다. Harris(1968)는 etic접근법에 대해 etic적 서술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개개인의 독립적 관찰이 비슷한 결과로 서술될 때 타당성을 평가받는다고 하였

다. 혹은 외적관찰자의 입장(outsider's view)은 관찰자에 의해서 정의된 행동양상의 양적분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Felto와 Felto는 emic과 etic이 기본가정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은 없으며 흔히 emic과 etic접근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두 방법은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과 연구를 통해 연구 문제에 적절히 사용될 때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 목적

모든 민속(족)학적 연구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을 설명하고 조직하는데 사용되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일반적 목적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연구를 위한 특정한 문화를 선택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민속학적 방법의 특성은 그 목적이 연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acher등(1961)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처음에는 의과대학생들이 졸업후 의사로서 활동하는데 있어 현재의 획득된 입장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탐구할 목적이었으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학문적 노력의 수준과 방향이라는 다른 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연구목적에 있어 초점(focus)이 바뀐 것이다.

민속학적 방법도 다른 질적, 양적방법과 같이 5가지 기본요소를 갖고 있다.

- 1) 현상의 확인(identifying the phenomena)
- 2) 연구의 구성(structuring the study)
- 3) 자료수집(gathering the data)
- 4) 자료분석(analyzing the data)
- 5) 결과의 진술(describing the findings)

1) 현상의 확인(Identifying the phenomena)

민속적 연구에서 현상은 연구할만한 하나의 질문(문제)을 갖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언어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양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할만한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분만경험이나 유아의 놀이경험 등이다.

2) 연구의 구조(structuring the study)

민속학적 방법의 두번째 요소는 연구구조의 계획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연구문제가 제시되는데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의지를 명시하고 연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① 연구문제(the research question)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의 의미로 쓰는 말은 어떻게 하나?” “부인들이 월경이나 회음 간호에 대한 의미 표현은 어떻게 하나?” “암환자들이 동종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나?” 등과 같은 질문은 민속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연구자의 입장(Researcher's perspective)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신념이 명시되어진다. 연구자의 입장은 참조의 틀로서 연구초기에 확인되어야 하는데 민속학자로서 자기의 일상생활에 따른 개인적인 편견은 팔호로 묶어놓아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삽입구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자료를 분석, 종합할 때는 개입시켜서는 안된다.

③ 연구자료(study sample)

문화집단의 자료는 살아있는 현상으로 존재한다. 문화란 특정한 인간집단이 지식, 관습, 목적, 사건, 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문화의 정의에서 연구자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어떤 문화집단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고 그 주제의 수도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연구자가 선택하는 것은 대상문화권에서 살고 있으면서 현상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주요 정보자(key informants)와 일반정보자(general informants)이다.

④ 대상자의 권리보호(protecting the rights of human subjects)

민속적연구의 특성은 많은 경우 겸손하게 접근하므로 허락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Spradley (1980)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3가지 형태의 상황을 제시했다. 즉 첫째는 마치 공공장소처럼 자유롭게 들어가서 연구하는 것이다(free entry). 둘째는 회사, 학교, 병원, 치료센터 등에 들어갈 경우 한두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한

된 들어감(limited entry)이다. 세번째는 못들어 가게 하는 것이다(restricted entry). 폐쇄 혹은 비밀사회가 이 경우에 속한다.

대상자의 권리는 적절한 허락을 얻는 것에 의해서 보호된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익명을 쓰는 것을 약속한다. 연구의 목적을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연구기간 중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질문과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반복한다. 주요 정보제공자는 연구의 전기간을 통해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역할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일반적 정보제공자에게도 원하지 않으면 연구자와 함께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3) 자료수집(Data gathering)

관찰과 질문한 것을 ethnographic record에 적는 단계이다. ethnographic record는 field notes, tape records, 사진, 고(古)기물 등 연구에 관계되는 문화적 장면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된다. 주요한 증거는 연구진행동안 민속학적 분석과 탐구를 통해 계속 확대되어 간다.

민속학적 연구전개의 주요 과정은 참여관찰과 민속적 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이다.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은 들어가서 보는 것이다(involved watching). 그러므로 연구자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같이 그곳에서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Spradley(1980)는 참여관찰자와 그 지역에 사는 보통참여자(ordinary participant)를 구별했는데 보통참여자는 그곳에서 매일의 일상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사건과 모든 상황에서 관찰대상이 된다. 참여관찰자는 그가 원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 분석한다. 이런점에서 Spradley는 etic과 emic접근이 이 과정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참여관찰의 전과정에서 내적관찰자(insider)와 외적관찰자(outsider) 양측이 모두 중요함을 기술했다.

민속적 탐구는 참여관찰과 함께 연구자가 밀접하게 통합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문화적 연구에서 연구자와의 밀접한 관계는 그들 사이의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되며 정보제공자에

의해서 주어진 정보를 더욱 의미있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논란이 있다. 연구자의 편견, 불완전한 지식, 연구자가 듣기를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경향, 불확실한 비판, 비구조화된 대화, 풍연히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것 등이다. Spradley는 민속학적 면담에 대한 몇가지 비판과 함께 면담의 요소로서 분명한 목적과 민속학적 설명을 제시했다.

다음은 Spradley가 제시한 면접전략의 주요 질문형태이다.

① 서술적 질문(descriptive question)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말 그대로를 표현하게 해서 참여자가 설명하는 것으로 설계된다. 서술적 질문은 모든 민속적 인터뷰의 중추가 된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어제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말해 주세요.”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주세요.” 등이다.

② 구조적 질문(structural question).

이것은 대상자들이 무엇을 아는지 또 그들이 아는 것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의 체계적 조직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보충적인 것과 확대된 보충적 자료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양노원에서 하는 활동의 종류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각각의 활동목록을 적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 활동을 도두 나에게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까?” “양노원에서 무엇으로 시간을 보냅니까?” “간호사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줍니까?” 등이다.

③ 대조적 질문(contrast question)

차이를 보기 위한 비교로 설계된 것이다. 의미체계내에서의 상징은 상이성과 유사성 양측면이 모두 관련된다. 대조적 질문의 초점은 서로간에 상징적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제공자가 대화에서 상징에 대한 묘사를 특별히 다르게 할 때 연구자가 지적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루일과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얘기과정에서 몇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묻고 싶다. 당신의 방문객이 당신에게는 얘기하고 다른 식구가 있을 때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차이점

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죽는 것과 집에서 죽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등이다.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질문안에는 또 여러가지 작은 형태의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풍부한 문화적 자료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록지(ethnographic record)에 잘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많은 질문들이 다 연구에 꼭같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므로 분석과 종합을 할 때 연구자의 기술을 요한다.

4) 자료분석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적 과정이다. 직선적인 연속선이라기보다는 나선형으로서 더 확대되고 복잡해진다. 다시말해서 연구자는 결론에 대한 가설을 먼저 설정하지 않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수준에 따라 정한다. 나선상에는 여러가지 수준이 동시에 통과한다. 이해의 새로운 측면이 발견되고 새로운 질문이 떠올라 자료를 타당하게 하고 확대한다. 이 단계는 여러 수준을 통해 자료수집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므로 연구자는 정보제공자의 언어에서 내재된 문화적 상징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① 영역분석(domain analysis)

분석의 첫단계는 일반적 관찰과 질문의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 단순한 명명(naming)을 위한 최초의 영역찾기는 예상적인 영역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가설적 명제가 참여자와 함께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의 영역은 다른 작은 범주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상징적 범주(symbolic category)이다. 분석의 첫단계는 단순한 명명을 넘어서 그 용어중에서 의미있는 관계를 찾기 위한 영역분석으로 영역찾기를 위한 첫 시도이다. 이 첫단계의 분석은 연구자가 구조를 조직하고 다음 자료수집에서 첨가될 질문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양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양상들은 종적인 틀을 따라 범주화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틀은 Universal semantic relationship framework인데 이것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의미있는

관계들의 형(type)을 대표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의미관계의 형은 공간성(spatial), 함축(strict inclusion), 속성(attribution), 지엽적(means-end) 그리고 이론적근거(rationale) 등이다.

② 분류적 분석(Taxonomic analysis)

분석의 다음 단계는 분류이다. 연구자는 연구를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즉 가능한한 많이 조사해서 포면적인 분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몇가지 영역을 깊이있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각기 대조되는 장점이 있지만 흔히 “전체적인 문화의 총체적 입장(holistic perspective of the whole culture)과 깊이 있는 분석을 절충해서 쓴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분석의 분류적 수준은 영역내에서 한가지의 의미있는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분류가 영역의 내적조직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분류적 분석에서 연구의 진행은 민속학적 탐구로서 분류한 것을 참여관찰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분류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지식의 조직을 문화의 방향으로 접근시키고 자료수집, 분석, 검증으로 끝내야 한다. 그러므로 영역과 분류적 분석은 단일 의미관계들을 검증하고 조직의 단위와 단위내의 대상자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③ 구성적 분석(Componental Analysis)

분석의 3번째 단계인 구성은 의미의 구성요소를 검증하므로서 다각적인 관계를 연구한다. 의미의 구성요소는 각 영역의 범주중에서 유사점보다는 상이한 관계를 나타내는 속성이 있다. 연구자는 다시 대조적인 질문을 계획하고 범주들 중에서 대조되는 자료를 분석한다. 이때는 참여자들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타당성을 높일 것이다. 이 관계에서 첨가되는 의미의 관계들은 분류에 가깝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다.

④ 주제분석(Theme Analysis)

자료분석에서 마지막단계는 문화적 주제의 발견이다. 문화적 주제는 문화의 총체적인 관점(holistic view)에서 영역을 연결하는 개념화이다. 주제는 소위 침수(immersion)라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그

문화에 깊이 개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료를 확대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자료에 깊이 빠져 대상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때 침수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연구자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날 때 확인된 특성(properties)과 개념화의 일반화를 피할 수 있다. 관찰자가 참여자의 세계에서 관찰을 했다 할지라도 자료는 항상 연구자의 연구방법에 의해서 분석되고 가려진다. 개념화의 일반화는 그 분야의 내용을 추상성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료는 가설적명제로 합성된다. 이러한 명제는 참여자의 현실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연구방법에 의해 합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연구에 관한 연구자의 개념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5) 결과의 진술(Describing the Findings)

민속적 연구의 결과 진술은 분석에서 나타난 가설적 명제를 진술하는 것이다.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 예만이 보고된다. 논의는 참조의 틀에 가설적 명제를 관련시켜 결과를 진술한다.

이상에서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민속학적 연구방법(ethnographic method)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모자간호학은 가족중심적이고 출산과 육아의 전과정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참여와 책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가족,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들의 건강 내지 간호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현대의학의 영향으로 임신부를 환자 취급하고 환자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의 사회적 정서적 안녕을 위해서는 그들의 건강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므로서 보다 더 만족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정성적인 연구, 즉 민속간호학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간호제공자가 대상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능한한 일치시키므로서 대상자의 행동을 예측하여 간호계획과 간호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민속학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결코 국수주의에 빠져 민속 그 자체가 가장 좋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현대의학의 공로를 간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민속적의료 및 간호를 접목시키므로써 대상자의 건강유지, 증진 회복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정량적인 연구와 정성적인 연구를 병행하므로써 '모자간호학에서의 간호이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수지(1988), Qualitative vs Quantitative Research," Korean Honor Society of Nursing pp. 155~25.
- 2) 방매륜(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3) 윤순영(1978), 현대의료와 한국농촌의 의료문화—의료인류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지역사회보고위원회.
- 4) 이경혜(1989), 한국의 전통 분만체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원 논총 제43집, 이화여자대학교.
- 5) 한경자(1986), 한국인 영아초기 수유시 모아상호작용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6) D. Sich and Y.K. Kim(1978), A Study on Child Bearing Behavior of Rural Korean Women and their Families,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 7) M. Lininger (1978), Transactional Nursing: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A Wiley Medical Publication N.Y.
 _____(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Grune & Stratton, N.Y.
- 8) Leah Ramer (1989), Quantitative Versus Qualitative Research, JOGNN, (1,2) pp.7~8.
- 9) W. Carole Chonitz, Janice M. Swanson(1986),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 Ca.
- 10) Rosemarie Rizzo Parse, A Barbara Coyne, Mary Jane Smith, (1985), Nursing Research-Qualitative Methods, Brady Communication Co.
- 11) Pelto, Pertli and Gretel H. Pelto, (1981), Anthropological Research: The Structure of Inqui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12) Spradley, James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Holt Rinehart and Winstar N.Y.
- 13) _____(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N.Y.